

보도일시 (인터넷) 2025. 2. 21.(금) 09:00,
(지면) 2025. 2. 22.(토) 조간

배포 2025. 2. 21.(금) 09:00

목포해수청, 영광군 안마군도 해상에 안전한 뱃길 조성

- 노후화된 안마항등대(2기) 개량으로 어선과 여객선 안전운항 도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환)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안마항 방파제 끝단에 설치된 노후화 등대(2기)를 올 8월 준공을 목표로 국비 6.3억 원을 투입해 직경 2.2m 높이 9.8m 규모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안마항방파제등대는 지난 '94년 12월에 신설되어 올해 기준 약 31년이 경과하였으며, '20년도 항로표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량공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금번 사업을 통해 안마항을 입·출항하는 어선과 여객선(계마항~안마항) 등 인근 통항 선박의 안전 항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승 항행정보시설과장은 “앞으로도 통항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어민들의 어려움을 발굴하여 선박 운항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한창승 (061-280-1720)
		담당자	주무관	조한솔 (061-280-1734)

참고

관련 사진

